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대행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푸른 산 푸른 물이 다 부처님 설법

17면에서 계속

우주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 차원에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허허허. 생각들이 말이예요. 왜 좀더 훌쩍훌쩍 뛰어 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천년 전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활나예요. 삼백년 전이라도 현실이란 말이예요. 만약에 우주가 있다면 우주를 조그맣게 축소해서 앞에 갖다놓고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묘하고 찬란한 이 공법이 이렇게도 편리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중에 혹시 '아유, 저 스님은 도대체 부처님 경전을 읽어주지 않구선 뭐 저런 말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다

어떤 돈많은 대장부가 어느날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한 보따리 주면서 '이 돈을 사흘만에 다 쓰고 오너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삼일만에 도저히 다 쓸 수가 없게 된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름으로 학교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자기는 속 빠지고 그 돈 준 사람 이름만 남으니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너 생각도 해하지. 어떻게 못 한벌도 안 사입었느냐. 이 멍청아" 이러더라랍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너는 진짜 사람이구나" 했더라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이 마음이 정갈하면, 정갈하다는 것은 '청정하다' 이런 말도 되죠. 바다에 말입니다. 구경물이나 모든 오물이 안 들어간다

**“남이 내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못해 돌맹이 하나라도 부처님 법문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걸요. 푸른 산은 그대로 부처님 모습이고 흘러가는 푸른 물은 다 부처님의 설법이예요. 모두가 아니 닮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건 부처님 법이고 어떤 건 부처님 법이 아닌건가요?

지금까지 말이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들어놓으면 언젠가 아! 하고 머리에 스텔간단 말입니다. 비록 뜻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 세상에 나올 땐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먹어 보지 않던 거, 자기가 써보지 않던 거, 보지 못하던 거는 생각도 안나요. 하지만 한번이라도 들어놓으면 다음 세상에 세상이 좀 낫죠. 아파서 울고, 죽네 사네 하고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은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중간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부분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울고, 어떤 부분은 안 돌아가셔서 울기도 하죠. 눈도 안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고통을 주니까 안 돌아가셔서 걱정, 빨리 돌아가시든 그 리워서 걱정, 걱정, 그런 사는 게 전부 그래요. 거기서 조금 낫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한철 구름같이 살다가 구름같이 떠가는 건데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도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결국 모두 죽을텐데 이까지 왕으로 있는 게 뭐 그리 대수나 싶어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죠. 그래서 자기를 알고 보니 '아하,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 꼭 알아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진짜 자기 선장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늘이 지금 무너져서 가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절절 웃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예요. 돈이 다 됩니까? 내가 돈을 가지려고 애 쓰면 돈이 오질 않아요. 필요하다면 주인 공에게 말하고 주인공에서만 스스로 갖다 주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어 잡아 당긴다고 해서 그 돈이 나한테 놀러 있는 게 아니예요.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서 내가 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가 모르게 한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되나가요. 하루를 있다 가든지 한달을 있다 가든지, 나날 때는 오히려 더 이 자를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 것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잃지만 바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천년 만년 수만년이 가도 자기 거예요. 그 왜 도둑맞게 집어지고 다닙니까? 팔자도 좋고서는 도둑놈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한판이라도 내가 젊어지고 다닙니까, 젊어지고 안 다니도 쓸 때 되면 다 들어오고 어떻게 살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돈 사람 들에게 공덕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면 바다라고 할 게 없죠. 안 그런가요? 대천 바다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떠한 물이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수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이러면 적은 우물과 같고 연못과 같지만 '한바다' 이러면 구름물, 빗물, 고름물, 흙물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그 바닷물이 다시 수습해서 맑은 물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바로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것 좋은 것 또는 더럽고 깨끗한 것, 짙고 진 것, 못 생기고 잘 생긴 것, 부지런 가난한 이런 걸 풍양 한데 합쳐서 우리가 동굴될 수 있어라! 이거 청정이라 애급니다. 깨끗하게 청정이 아니라 애급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생물로도 윤회 합니까

문 윤회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물 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육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육도라도 윤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이나 나무 같은 무생물로도 윤회

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돌맹이가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바닷가 돌에 닿고 닿아서 반쪽이 없어졌다면 그것도 바뀐 건가요? 이것도 윤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윤회란 꼭 과거 생이나 미래 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생이나 노릇,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등 찰나찰나 역할이 바뀌며 사는 것도 바로 윤회예요. 살아서 윤회가 죽어서도 윤회인 것이죠. 윤회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나가는 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지는 것도 윤회구요, 금방 말을 했는데 이 지나가버리고 또 난 말을 하는 것도 윤회구요, 한박씩 때려놓고 없어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윤회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조차 없다고 하고 윤회 또한 너무 바빠지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붙을 데가 없는 것이 윤회라고 합니다. 반은 있고 반은 없어 윤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생물도 그냥 막 돌아가는 무슨 윤회가 거기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에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윤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나 윤회도 없다 라고 할 수 밖에요.

육도윤회도 방편인지요

문 그렇다면 육도윤회라는 그 가르침은 결국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까?

답 그렇다면 육도윤회라는 그 가르침은 결국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까?



그림 · 최주현

답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학술적으로 꼭 있어야 배우는 것이고 또 실제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경전이나 교학도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육도윤회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다 있는 거지만 단지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것에 걸리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걸 보고 배우더라도 그것도 내가 침착하게 한번 거기가 놓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것도, 내가 움직여주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만나게 하는 것도,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모두가 그 능이 하는 거니까요. 자기 자성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알고서야 그것이 다 해당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그

것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마음이 착하고, 자기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위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나만 희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년 동안에 될 거 일년에 되고 일년에 될 거 석달에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면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걱정을 안하나 이러겠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인 그 관습에 의해서

공부에 조금함이 생깁니다

문 스님 법문을 듣고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되고 환희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공부해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 마음이 쉬어지는 걸 알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꾸준한 공부하다보면 언젠가는 나를 발견하고 숨을 녹이게 될거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있고 보니 조금씩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어떤 일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놓아주고 쉬어지는 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뒤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고 아니고 그렇다고 안해야겠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보고 듣는 것,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 돌 아끼게 믿는 마음, 즉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움직여주게 하는 그 힘을 믿어라 이 소합니다. 그게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죠. 그 근본이 없다면 아마 모두 송장들입니다. 사실 믿으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자기 뿌리와 씩이 붙어있는 건데 뿌리없이 썩는 것 보셨습니까? 그리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부도 음악을 연주할 때 줄을 다루는 것처럼 너무 팽팽해도 아니고 너무 느슨해도 안되는 거니,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또 너무 게을러서도 안됩니다. 부지런히, 안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요. 잘한다 못한다 양면은 다 놓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입산해야 공부 잘되는지

문 스님을 뵈지 4년정도 되는데 스님 말씀을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극락에서 사는 기분입니다. 도반들과 공부하다보니 이런 의문이 났습니다. 스님께서도 젊은 시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산으로 가서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산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은 왜 산으로 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아마도 나 아닌 내가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서 끌고 돌아다녔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때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셨죠. 그리

“한생각을 좋고 밝게내야 모두에게 이익”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 IMF한과 극복”

천차만별의 문제를 다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이겁니다. 하지말라 하라는 게 따로 없이 그대로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행선입니다. 우리 생각에 앉았으면 좌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땐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요? 그러나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선은 끊어져 버려요. '좌선을 한다,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든 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누워 잠을 자든지, 와선, 입선, 행선, 좌선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돌 아끼게 행동 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참선이 돼야죠. 몸이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지지는 좌선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걸 이롭게 해서 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로 경제가 어려운데...

문 요즘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일, 이년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고생을 해야 된다고 얘길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적 위기조차도 공부의 재료, 또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불자로서,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것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운 고비가 몇 년 간다 이러고, 또 빛을 어떻게 잡나 이러지마는

집착을 갖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길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도 안가고 늦게 들어오거나 어디서 자고 온다 해도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 말할 자식, 어찌구...' 하고 욕을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아무리 속을 썩어도 그래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흠지는 않았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안으로 관하고 말을 해줘라 그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자기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무는 뿌리끼리 통하고 사람은 마음으로 통하지만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와 뿌리끼리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도 통신이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처럼, 들어오고 싶은 것도 그 마음이 들어오고 싶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마음으로 고장난 걸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고치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관하라고 알려주면 아이가 돌아왔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해줍니다.

“들어왔다고 마음 딱 놓지 말고 마음에다가 관하고 부드럽게 해줘라.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남이 나에게 잘해주지만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요.

고 나서 또 고행을 하셨는데 그건 왜냐? 나를 위해서가 곧 타의의 나를 위해서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바로 나기 때문에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고행을 이차적으로 하신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산에 간단 얘기를 하셨는데 더불어 사는 세상이 시끄럽다고 떠나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떠나셨다면, 그러면 남이 지는 웃도 입지 말고, 남이 농사 지는 쌀도 먹지 말아야겠네요. 더불어 사는 도리를 다 내버리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공부 잘 되는 건 아니예요. 가더라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돌 아님 도리를 알고서 체험하러 가는 경우는 있죠. 내가 젊었을 때 왜 산으로 갔느냐 하면요, 물러서지 않는 패기, 두려움 없는 패기, 그리고 돌로 보지 않는 패기! 그런 모습을 기르기 위해서였어요. 그 뒤로는 산이든 어디든 두려움없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길을 걸어 보니까 길도 없고 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정상이예요. 내가 다 해보고 나서 여러분한테는 쉽게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미쳤다는 소리 안듣고도 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산으로 갈려고 하십니까.

공부는 마음으로 깨쳐야지 몸뚱이만 이

리저리 옮긴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편안하고 걱정이 없으니가 말수도 적어집니다. 마음이 휘질 않게 되죠. 정신 분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돼서 그 의식의 생명들이 몸뚱이 속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좋은 인연은 이익하게 작용을 해주고, 나쁜 인연은 나쁜게 몸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무슨 병, 무슨 병이니 해도 사실 그것도 이름일 뿐 내 과거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분열이라도 타의에서 귀신이 들어온 건 아니죠. 자의에서 일어난 건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건 자기의 불성 주인공에게는 없거든요. 그 의식을 다스리고 내 몸뚱이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일임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러는 거니까 너만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다 놓으면 그대로 정신 분열증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꼭 귀신이 나한테 들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못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거지,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유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뚝뚝 물론 사실은 그것도 없습니다. 다 생각으로 지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한생각을 내려도 좋게, 밝게, 윤희게 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각을 하셔야만 공덕이 됩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아유, 유전이 있구나 보라,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고 생각이 이미 그렇게 얼룩 박혀버립니다.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뿐만 아니라 패기도 좁은 생각이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약하게 하니까 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약하게 되고 일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도둑질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 의식들도 그대로 따라주고요, 오늘날에 도둑질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그대로 따라주고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뿐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가 있고,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못하는 수도 있죠. 모두가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갑작스러워 식구들이 아쉬워하고 보고 싶어하면 한사나출만 있다가 가면 어때요? 통사고 받아내고 해통 식구들을 고상시키고 꼭 그렇고 해야만 속이 시원한가요? 그런 것도 미미미리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한 웃을 벗고 새 웃으로 바꿀 때 자기 영혼만 딱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하면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예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건 천리를 건너뛰어도 건너편 사이가 없는 겁니다. 육체는 문을 찾아서 열고 닫고 하지만 마음은 문을 찾아서 그렇게 열고 닫고 하지 않아도 천리를 건너뛸 수 있고 그 건너 뛴다는 소리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도 각자 마음으로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안방까지 그냥 들어가지는 거지, 대문 열고 방문 열고 열쇠구멍 찾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제가 없어 한 할나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안과 밖 할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가게 한다면, 작게는 내 가정부터 크게는 한나라, 세계, 우주까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원리가 말입니다. 물이나 마음이나 돌고남이 있어야 새물로 바뀌고 발전이 있지 흘러가는 물은 한군데다 가뭇놓으면 결국은 썩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모두를 싸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마음의 차원이 한 국가의 차원이라는 걸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협찬 주인공